

光州日釈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79호 1판 (음력 12월 16일)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영호남 연결 광역도로·철도망 확충을"

영·호남 8개 광역시·도 단체장들 9개 공동 정책과제 논의 '공원 일몰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부 예산 지원 요구

달빛내륙철도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철도망을 확충해 달라고 영·호 남 8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교류 확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영호남 연결 SOC 예산을 제때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장은 또 '공원 일몰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이날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제14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9개 공동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 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송하진 전북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 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한경호 경 남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국비 보조 근거 법령 을 마련해 2020년 7월로 예정된 '공원일몰 제'에 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0% 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 대상도 연간 100곳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전철화,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동서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 로 건설, 동서통합대교(남해2대교) 건설 등 영호남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추진 ▲지방 분권 실현 촉진 ▲대통령 공약사업 조속 추 진 ▲기술개발제품 정부합동평가 지표 가중 치 조정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원전지역 '주민소통협력관' 신설 ▲가야 문화권 특별법 제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을 영·호남 시도지 사 협력회의 의장으로 선임하고, 제15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광주에서 개 최키로 합의했다.

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 의 지방분권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살릴 절호의 기회인 만 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영호남이 협력해 대일본, 대중국, 대동남아시아를 향 한 신해양 실코로드를 함께 열자"고 제안했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꽃으로 졸업 축하해 주세요" 졸업 시즌을 앞둔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화훼공판장 일대는 카네이션, 장미 등 화려한 색깔의 꽃을 구입하려는 이들로 붐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결국 … 국민의당 2·4 전당대회 취소

전당원투표·중앙위원회 거쳐 바른정당과 통합 의결키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당 대회가 아닌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3면〉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 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를 취소하 고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당무위에서는 우선 현재 당헌에 '전대 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며, 이 경우 중 앙위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이어 4일에 23곳에서 분산해 개최하려 했던 전대는 취소하고, 대신 중앙위를 열 어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당헌이 개정된 뒤에는 전당원 투표 및 이를 추인하기 위한 중앙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 현재는 오는 5일 전당원투표를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1곳·전남 3곳 등 전국 29곳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

대상지 어느 지역 될지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1곳, 전남 3곳의 범위 내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전략공 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방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 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상대 당 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 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법률 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 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 대변인은 "전략공천 적용대상 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 요한 선거구"라며 "적용 범위는 전국적 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한다"고 말

아울러 전략공천은 해당 시도의 기초 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20개 면 2곳, 10개 이하면 1곳 이내로 하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 지역은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 정도가 예상된다.

당헌·당규 개정은 당무위 의결로 확정 된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공천위원회 심 사, 시도당 협의, 최고위 의결, 당무위 인 준을 거쳐 전략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전 략공천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광주·전남 내 어느 지역이 전략공천 대상지가 될지 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현직 기초단체장 이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서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 는 지역과 유력한 여성 및 청년후보가 있는 지역 등이 전략공천지역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광주지역 일부 구와 해남·무안·보성군 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지역 입지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전략공전지 최 종 선택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제주→국민주' 삼성전자 주식 첫 액면 분할

1주당 가액 5000원→100원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50 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의했다. 기존 액면분할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통상 10 대 1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파격 적인 결정이다.

이번 액면분할에 따라 발행주식의 1 주당 가액이 5000원에서 100원으로 변 경됐다. 주가가 250만원이라면 5만원으 로 낮아지는 셈이다. 보통주식의 총수는 기존 1억2838만6494주에서 64억1932만 4700주로 늘어난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23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

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분 할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 전자의 주가가 너무 높아 일반 투자자들 이 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적으로 제기된 데다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른바 '황제주'를 '국민주'로 탈 바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일반 투자자들 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 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면모를 새롭 게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삼성 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날 보통주 2만1500원, 우선주 2만1550 원의 주당 기말 배당을 결의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림편지 - 대만에서 이인성 ▶18면

평창 성화 점화자는 누구? ▶20면

∿ 올림픽 추천 복장

Passion [열정], Vision [꿈], 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대회기간 강릉시내 버스 전 노선 무료 운항

운영시간 매일첫경기3시간전~ 마지막 경기 종료 2시간 후



평창올림픽을 더 알차게 즐기기